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Book Imports in the late 19th century from China to Joseon in a list of Shanghai Bookstores

李 憶 晶 (Lee, Hyejung)**

◁ 목 차 ▷

- | | |
|----------------------|------------------------|
| 1. 서론 | 4. 『집옥재서적목록』에서 확인되는 상해 |
| 2.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의 | 발행 서적 |
| 체계와 구성 | 5. 결론 |
| 3. 상해 소재 서점의 위치와 판매한 | <참고문헌> |
| 서적의 구성 | |

< 초 록 >

이 글은 19세기 말 상해의 서점에서 판매하던 서적을 기록한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을 분석하고, 그 서적을 수입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集玉齋 소장 서적과 비교한 것이다. 상해의 서점에서는 당시 판매하던 서적을 목록으로 만들어 배포하였는데, 목록을 살펴보면 상해 서점에서 판매하던 서적 중 신간 도서나 석판 인쇄 기술로 간행한 책을 중심으로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록을 분석함으로써 1888년 즈음의 상해 서점의 서적 판매 현황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의 서재로 알려진 집옥재 소장 서적 목록인 『집옥재 서적목록』을 살펴보면, 상해에서 판매하고 있던 서명이 나타나며 그 실물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어 판매 목록과 입수된 서적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에서 판매되고 있는 도서 목록을 조선 왕실에서 입수하여 필사한 후 필요 서적을 골라 구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말 왕실 뿐 아니라 사대부 집안에서도 중국 서적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통해 중국 서적의 조선 내 유통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要語: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 조선왕실, 집옥재, 집옥재서적목록, 상해, 중국서적, 서적 수입, 19세기

< ABSTRACT >

The late 19th century, a list of books which is *Shanghai Seojang gakjong Seojeok Docheop Seomok*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 had been sold in China. Shanghai Bookstores in owned a collection, and leaflets and flyers of the book distributed. It had been compared with a collection of books in King Gojong's library, is called Jibokjae (集玉齋). As one might expect, the book in Shanhai can be imported into Joseon to Jibokjae. There were many western scientific books in Jibokjae. It is presumed to be purchased form Shanghai Bookstores. It is expected that the Qing(清)'s book in the late 19th century can supply important clues to study how the books are issued for use by the public.

Key words: Shanghai bookstore, Joseon, Jibokjae, 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 Shanghai, Chinese book, 19th century, western scientific book

* 이 논문은 박사학위논문(『集玉齋書籍目錄 연구』)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객원교수(esus00@hanmail.net)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8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23일
서지학연구, 제80집, 361-379,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361>

1. 서론

한반도에서 삼국시대¹⁾ 이전부터 중국을 통해 서적이 유입되었다. 특히 조선의 경우 중국으로의 정기적인 사행길을 통해 중국에서 발간한 최신 서적을 조선에 가지고 오기 위해 힘쓴 기록이 문집이나 연행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서적 구매는 북경 유리창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구매한 서적이나 진행 과정에 대한 연구²⁾도 확인된다. 그 외에도 중국 서적의 수입에 관한 연구는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장서각 소장 『상해서장각중서적도첩서목(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이하 『상해서목』)과 『집옥재서적목록(集玉齋書籍目錄)』⁴⁾(이하 『집옥재서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상해에서 19세기 말에 판매하고 있었던 서적의 현황과 조선으로의 유입을 살펴보고자 한다. 『상해서목』은 1888년에 상해에 소재한 16개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서적들의 목록을 조선에서 필사한 것으로 서명, 가격, 수, 판 중 등 간략한 항목을 정리한 서목이다. 이 서목을 통해 19세기 후반 상해에서 어떤 종류의 서적을 중심으로 각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해서목』이 상해에서 판매하고 있던 서적을 조선에서 베껴 기록한 목록이므로 서지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서적 중 일부 자료는 고종의 서재인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영향 관계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태진의 논문을 통해 집옥재에 소장되었던 서적의 대부분이 중국본인 것으로 밝혀졌다.⁵⁾ 이 자료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상당수의 중국본이 상해에서 출판된 것으로 나타난다. 『상해서목』과 『집옥재서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상해에서 간행되었던 서적 중에 어떤 도서가 집옥재에 소장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집옥재 소장 도서 전체를 실물 열람하는 것이 개인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많아 규장각의 목록과 이미지, MF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송일기,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4, No.1(2013), 238-248, 253-255.

2) 박수필, “조선의 중국 서적 유입 양상과 그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2011), 127-131.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61(2015), 16-26.

3) 민희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47(2015), 211-217.

윤세순, “외래 도서가 한국한문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의 탐색; 조선시대 중국소설류의 국내유입에 대하여,” 『동방한문학』 66(2016), 27-41.

4) 고종의 서제로 알려진 집옥재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을 정리한 목록이 『집옥재서적목록』이다. 『集玉齋書籍調查記』(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1705), 『集玉齋目錄外書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1703), 『集玉齋書籍目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 11676,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667, K2-4667=2)으로 규장각에 3종, 장서각에 2종 소장되어 있다. 이해정의 박사논문을 통해 작성된 순서와 체제, 기록된 서명의 구성 등을 알아보았다.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것이 『集玉齋書籍目錄』(奎 11676)이므로 이 목록을 기준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해정, “集玉齋書籍目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5)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서울: 태학사, 2000), 280-292.

2.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의 체계와 구성



<그림 1> 『상해서장각종서적도첩서목(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

상해에서 판매되고 있던 서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상해 서점의 판매 목록집인 『상해서목』⁶⁾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서목은 1888년(고종 25)에 상해에 소재하고 있는 16개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던 도서 목록을 서점별로 구분하여 필사한 것이다. 서점별로 석인본이나 연판본, 목판본 등 판종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해 두었는데, 각 서점의 목록 끝에는 서점에 관한 간략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에는 서점의 위치나 판매하고 있는 서적의 종류, 구매자에게 보내는 각 서점의 장점 등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상해서목』의 필사자가 서점을 파악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작성했던 홍보문구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홍보문구들은 1888년(고종 25)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므로 『상해서목』도 1888년 이후에 필사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서명은 표제(表題)를 기준으로 하였고, 별도의 범례나 목차 등은 기록되지 않아 정확한 작성 시점이나 이유, 서점의 선정 기준 등은 확정할 수 없다. 『상해서목』에 수록된 서적은 대부분 석인본, 연판본, 석판본을 위주로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간행되었던 서적 중 판매용 목록을 중심으로 조선 왕실에서 수집하고 선별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16개의 서점에서 발행했던 당시의 판매 서목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내용

6) 『상해서장각종서적도첩서목(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K2-4650)
형태사항: 四周單邊 半郭 21.1×13.8 cm, 烏絲欄, 10行22字 註雙行, 無魚尾; 30.3×19.0 cm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상해서목』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당시 판매되었던 서적과 가치, 판매 경향 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해서목』에 수록된 목록에는 장황, 채색, 종이 종류 등이 추가된 경우도 확인되지만 주로 판매하고 있던 책의 서명과 권 수, 판매 가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상해서목』은 천(天)·지(地)·인(人) 3책으로 분책되어 있으며, 조선에서 필사하고 장황한 조선 필사본이다. 서목의 첫 장에 ‘집옥재(集玉齋)’와 ‘이왕가도서지장(李王家圖書之章)’이 날인되어 있어 집옥재⁷⁾에 소장되었다가 후에 이왕가도서로 편입되었던 서적임을 알 수 있다. 『상해서목』을 완성한 직후의 소장처는 확실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 이전 소장처의 유무는 확정하기 어렵다.

『상해서목』에는 16개의 서점에서 발행한 58개의 목록을 수록하고 있다. 58개의 목록은 판종 구분 없이 석인본, 동판, 연판, 목판을 함께 기록한 서목부터 주제별로 엮어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한 것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판매하는 서적의 서명과 함께 가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가목(價目)’으로 기입되어 있다.

목록의 작성 방식을 살펴보면, 첫 줄에는 가목명(價目名)을 기록하였으며, 가목명을 통해 해당 가목의 판종(석인, 동판, 연판, 목판 등)을 알 수 있다. 『상해서목』의 16개 서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록을 서점 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목록은 대체로 석인본을 위주로 기록하고 있으며, 석인본 이외에도 목판, 연판, 동판, 비첩 등 다양한 판종의 서적을 기재하였다. 가목명과 그 다음 줄에 서명과 판매 가격만을 상하 2단, 혹은 서명, 책 수, 판매 가격 3단으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 가목의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는 각 서점의 홍보 문구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창서장(海昌書莊)과 같이 판종을 구분하지 않고 석인·동판·연판 각종 서적을 필사한 목록이 있으며, 독미루(讀未樓)와 같이 석인본과 목판본을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는 목록도 있다. 한 가목에 판종이 여러 종류 기록된 경우 각 서적의 판종을 확인하기 어렵다.

판매하고 있는 책에 대한 정보는 서명 하단에 두 줄로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서명의 책을 여러 종류 보유하고 있는 경우 크기나 책 수 등으로 구분하여 금액을 각각 기록하였다. 서적에 대한 주기 사항은 판형(대(大)·중(中)·소(小)·수진(袖珍)), 판종(목판(木版)·연판(鉛版)·협판(夾板)), 종이 종류(백지(白紙)·죽지(竹紙)·견(絹)·색지(色紙)·피지(皮紙) 등), 색깔(만색(滿色)·묵수(墨水)·작색(着色)), 장황의 형태(갑(匣)·표제유무(已·未裱)·표지의 재질(綾·紙·絹)·포갑의 재질 등), 수량(책(冊)·장(張)·조(條)·대(對)·병(柄)·함(函)) 등으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책의 부록 유무 등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는 판매 목록도 확인된다.

7) 원래 창덕궁 함녕전 북측에 1881년 세워진 별당으로 1891년 경복궁으로 이전되었다.

『承政院日記』 고종 18년 9월 24일.

“營建所, 咸寧殿之北別堂之號集玉齋, 營建所, 集玉齋上樑文製述官上護軍金炳始, 書寫官大護軍金元植, 懸板書寫官直提學金永壽.”

『承政院日記』 고종 28년 7월 13일.

“傳于曹萬承曰, 寶賢堂改<建>, 集玉齋移建, 令重建所舉行。”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표 1> 『상해서목』의 각 서점 별 價目

No	서점명	가목
1	海昌書莊	上洋海昌書莊發兌石印銅版鉛版各種書籍圖帖價目
2	文玉山房	文玉山房書目 文玉山房書目 文玉山房書目 文玉山房書目 文玉山房銅版石印書籍
3	江左書林	上海江左書林發兌石印書籍價目 石印銅版錫版各種書籍 家藏初印舊書 新校刊經史子集各種善本
4	寶文閣	上海寶文閣發兌石印書籍法帖價目 習英文書籍
5	文瑞樓書莊	上海文瑞樓書莊發兌石印鉛版木版各種書籍 石印縮本書籍價目 鉛板木板價目
6	讀未樓	讀未樓發兌石印新刻各種書籍 石印各種書籍 木板各種書籍
7	鴻文書局	上海鴻文書局各種石印鉛版書籍圖帖
8	抱芳閣書林	上海抱芳閣書林發兌石印各種書籍價目
9	申報館	申報館新印各種書籍發兌 鉛版 鉛版 石印 木板
10	格致書室	格致書室書圖價目 江南製造總局繙譯各種西書 格致彙編館譯著名書 益智書會譯著名書 各埠中西人譯著名書
11	著易堂書局	上海著易堂書局發兌石印各種書籍價目
12	點石齋書局	上海點石齋書局石印各種書籍圖帖 各種書籍 習英文書籍 中外地圖 碑帖 畫幅 墨寶 對聯
13	同文書局	上海同文書局石印書畫圖帖 各種書史價目 各種字畫價目 酒牌
14	文匯館	文匯館發兌石印書籍
15	望三益齋	上海望三益齋發兌石印書籍法帖價目 習英文書籍
16	三蒼書局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碑帖 各種畫譜價目 石印碑帖 日本銅板書籍 銅板地輿圖 木板書籍 日本銅板畫譜 畫幅琴條 對聯 墨寶

판매 가격은 매 부(部) 당 양(洋)○원(元)/각(角)/푼(分)/리(釐)로 구분하고 기록하였고, 격치서실의 강남제조총국번역각종서서(江南製造總局繙譯各種西書) 등의 목록에서는 제전(制錢, 청나라 정부 주조 동전)으로 기록하였다. 강남제조총국의 책은 청나라 정부 주조 동전으로 통용하고 있어, 양은을 이용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각 5푼을 더해서 구매할 수 있어 양은과 제전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강남제조중국책은 제전(制錢)으로 족히 통용됩니다. 실 가격은 포투(布套) 혹은 협판(夾板) 매 부당 1각 5푼을 확일적으로 더하십시오.⁸⁾

가목의 앞 혹은 뒤에는 서점의 홍보 문구를 기록하여 위치, 판매하는 서적의 종류, 구매할 수 있는 방법, 분점 유무 등을 알리고 있어 서점의 대략적인 모습과 규모가 확인된다.

보문각은 노북문(老北門) 외 영국 조계지의 사마로에 위치하는데, 경찰서(순포방(巡捕房))의 남쪽에 방향으로 개설했습니다. 각 성의 국각(局刻), 방각(坊刻)과 석인본·동판본 등 각종 서적을 발행하고, 옛 서적을 거두어 삽니다. 다만 서명 목록이 번다하여 실로 모두 신기 어렵습니다. 여러 군자들이 구하고자 하는 각종 서적은 모두 있을 만하니, 목록 외에 구하고자 하는 자료는 적어주시면 대신 구매해 드립니다. 저회 가격 목록은 특히 저렴합니다. 먼 지역은 우편국을 통하여 보내드립니다. 주소와 이름을 상세히 적으시면, 즉시 발송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 저작이나 옮겨 적은 비본(秘本)이 있다면 보문각이 또한 대신 간행해드립니다. 광서(光緒) 정해(丁亥, 1887) 보문각주인이 삼가 아뢰입니다.⁹⁾

보문각의 홍보 문구에는 서점의 위치(사마로), 각종 서적의 발행 및 판매, 목록 외 서적 유무, 개인 소장 서적의 간인 의뢰, 우편을 통한 책 신청 및 당일 발송, 중국 각 지에 위치한 분점 등을 밝히고 있다. 서점에서 목록을 제작한 이유는 판매하는 서적의 종류를 널리 알리고 우편을 통한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유통하고 있는 책의 판본과 가격, 우편을 통한 판매 등을 내세워 구매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문각과 같이 우편을 통해 서적을 판매하는 곳은 독미루,¹⁰⁾ 망삼익재(望三益齋)¹¹⁾가 있다. 저역당서국(著易堂書局)¹²⁾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편으로 거래하지 않고 직접 서점을 방문해야만 서적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방각서림(抱芳閣書林)에서는 석인각종서적(石印各種書籍)의 가목을 기록하고 있다. 홍보문구를 살펴보면 석인본 뿐 아니라 동판,

8) 『상해서목』 제2책 제69장.

“以上局書，制錢通足，實價劃一加，布套或夾板，每副一角五分。” <그림 2> 참조.

9) 『상해서목』 제1책 제106장.

“本坊開設，老北門外英租界四馬路，口巡捕房南首。發兌各省局刻・坊刻，以及石印・銅板各種書籍，並收買舊書。惟是名目，繁多實難悉載。諸君欲購各書儘可在，目錄外開單委購，價目格外從廉。遠處由局寄帶，註明住址・台甫，即班回件。倘有各人著作，及傳鈔秘本，本坊亦可代爲刊印。光緒丁亥 寶文閣主人 謹白。”

10) 『상해서목』 제2책 제32장.

“本坊發兌 局刻・家刻・坊刻，及石印・銅鑄・鉛板。新出各種書籍，無不齊備。惟是名目繁多，實難悉載。諸君欲購各書儘可。目錄外 開單委購，價目從廉。遠處由信局寄帶，註明住址・台甫，即日回件不誤。上海 三洋涇橋 北塊 讀未樓主人，謹白。”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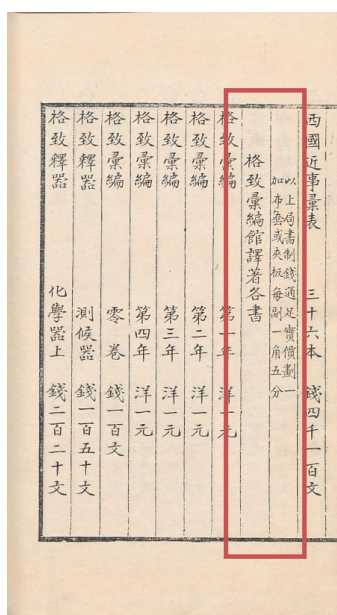
11) 『상해서목』 제3책 제65장.

“本齋開設 四馬路 中市 更上一層樓 東首。交易發兌 各省官局精刻・家藏校印，並石印・銅版・鉛版・各種書畫・圖帖，兼收買舊書。惟書名繁富，未及全載，略備仿單，以便查閱。單外 凡各坊所有之書，以及每日登報之書，皆已全備。博雅諸君 賜顧者 須認明本齋可也。外埠由信局寄購，隨時奉覆，決無遲誤。價格格外從廉。倘有珍藏・著作・傳鈔秘本，本齋亦可代印。光緒 戊子 望三益齋主人，謹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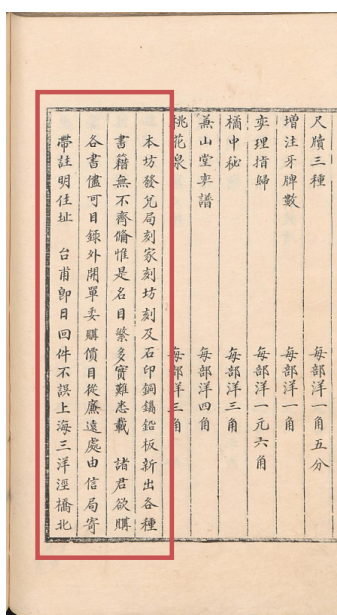
12) 『상해서목』 제1책 제1장.

“本局開設 上海 老北門 外 三茅閣橋 北棋盤大街 坐西朝東 門面。發兌石印各種書籍，其自鑄鉛版各書，及各省・官局書籍。別備書目一冊，以供選購。賜顧者 請移玉至本局，交易可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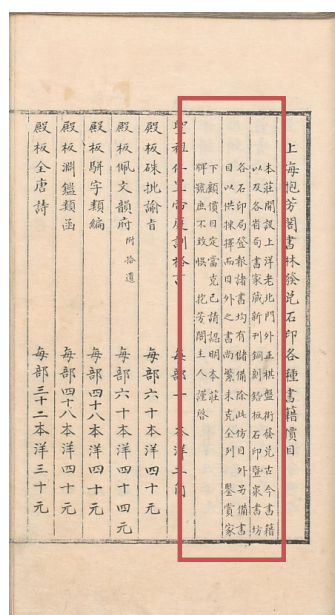
각 서점에서 소장하고 있던 서적은 가목에 기록된 것 보다 많은 종류의 서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제작한 가목은 『상해서목』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입수한 한정된 가목을 편집하여 만든 것이므로 『상해서목』만으로 상해에서 유통되던 서적의 전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현황과 당시 조선에서 구입하고자 했던 서적의 대체적인 목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강남제조총국 홍보문



<그림 3> 독미루 홍보문



<그림 4> 포방각 홍보문

“本莊開設，上洋老北門外五棋盤街。發兌古今書籍，以及各省局書·家藏·新刊銅刻·鉛板·石印。暨衆書坊·各石印局，登報諸書，均有儲備。除此仿目外，別備書目，以供採擇，而目外之書，尙繁未克全列。鑑賞家，下顧價目，定當克己。請認明本莊牌號，庶不致悞。抱芳閣主人，謹啓。”〈그림 4〉 참조.

3. 상해 소재 서점의 위치와 판매한 서적의 구성

전통적으로 중국의 출판문화는 강소성, 절강성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는데, 19세기 후반 문화의 중심이 상해로 이동하게 된 것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아편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남경조약(南京條約)이 체결되면서 광주(廣州)·복주(福州)·하문(廈門)·영파(寧波)·상해(上海) 다섯 개의 항구를 강제적으로 개방하게 되었다. 1843년에 개항된 상해에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조계(租界)가 있었고, 그와 함께 서양의 선교사 등으로부터 인쇄기구나 인쇄술 등이 들어 오게 되었다. 1851년부터 1864년 사이에 있었던 태평천국운동은 1853년 강소성과 절강성의 사대부들이 상해로 대거 이주하게 되는 사태를 낳았다. 상해로 이주한 사대부들이 조계지 내로 이동한 것은 태평천국군이 상해를 공격했던 1860년 무렵이었다.¹⁴⁾

19세기 중반에 상해의 조계지를 중심으로 서양의 신기술이 유입되었고,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사대부들이 태평천국운동의 영향으로 상해로 이주했다. 그들은 목판 등을 이용하여 지식을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였고, 자본이 있었다. 상해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인쇄할 수 있는 석인본 인쇄술이 선교를 앞세운 서양인들에 의해 도입되었다. 석인본은 목판 본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고 정교하게 인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절강성·강소성의 사대부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신식 기술에 대입하여 많은 양의 서적을 간행하게 되었다.

중국의 지식뿐만 아니라 서양의 지식도 상해에 위치해 있던 강남제조국을 중심으로 한문으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이것은 15세기 이래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 문물을 번역한 예수교선교사들의 작업의 뒤를 잇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인 선교사인 존 프라이어(John Fryer, 傅蘭雅, 1839-1928)는 상해에서 서양 과학 서적의 출판과 보급에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꼽을 수 있다. 1868년부터 강남제조국에서 중국인과 함께 서양 서적을 번역하였으며, 1874년 격치서원(格致書院)을 개설하여 교육과 출판에 힘썼는데, 이 때 간행된 서적들이 중국 뿐 아니라 조선에도 수입되었다. 18~19세기에 중국에서 인쇄된 석인본 서적은 조선의 양반가 및 궁가에서도 소장하고 있었으며, 그 중 고종의 서재로 알려진 집옥재에도 중국본이 대량 소장되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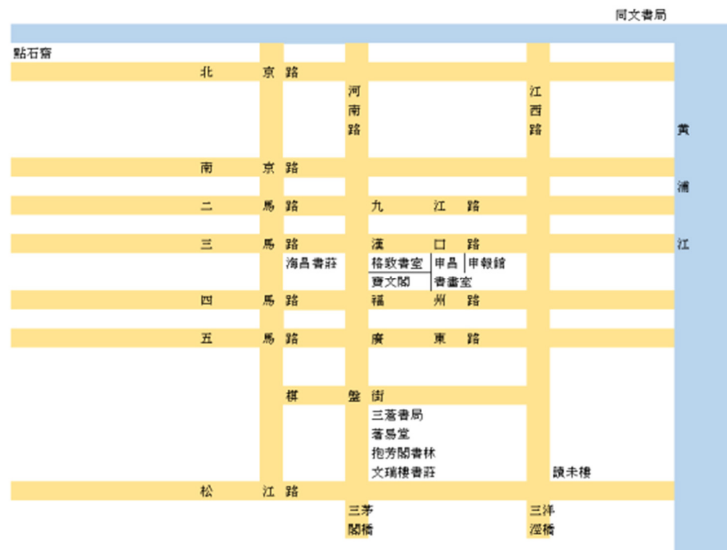
상해에 소재하고 있던 전체 서점의 수와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상해서목』에 수록되어 있는 16개 서점에 대해서는 홍보문구를 통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16개 서점 중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선에서 상해의 각 서점의 서목을 구해 편집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서점이 상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점들이 위치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상해 영국 조계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서점이 형성된

14) 김미정, “上海에서의 근대적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에 관하여,” 『中國文學』 제40집(2003), 191.

15) 이태진(2000), 292.

곳은 영국 조계지 중에서도 삼마로인 한구로(漢口路), 사마로인 복주로(福州路)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상해서목』에 수록된 문구를 살펴보면 신보관은 상해 삼마로 대예배당의 남쪽에 있었고, 격치서실은 상해 삼마로 신보관 서쪽 옆집 북향 문면(門面) 제472호에, 해창서장은 상해 북시(北市) 포구장(拋球場) 남쪽 삼마로 입구에 붉은 담이 있는 3층 서양 건물 동향집 문면에, 강좌서림은 상해 사마로 중에, 망삼익재는 사마로 중시(中市) 2층 누각 동편에 있어 삼마로와 사마로 사이에 서점이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프랑스 조계지 북쪽에 위치한 영국 조계지 남쪽의 기반가(棋盤街)를 중심으로 서점가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문서국(虹口) 서화로(西華路)과 같이 미국 조계지에 위치한 서점도 나타나 있다. 서점 정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상해 서점 위치

『상해서목』에 수록되어 있는 서점의 위치정보를 통해, 영국 조계지 삼마로와 사마로, 영국 조계지와 프랑스 조계지의 경계에 가까운 기반가를 중심으로 서점가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망삼익재와 강좌서림은 복주로인 사마로에, 문옥산방(상해 영국 조계지 오마로 지방)은 광동로인 오마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정확한 곳은 알 수 없다. 기록상에 나타나지 않은 서점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해현성(上海縣城)의 남쪽에는 강남기기제조총국(江南機器製造總局)이 위치하는데, 강남제조국에서 간행한 서적은 격치서실의 도서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1884년(광서10)에 점석재에서 만든 ‘상해현성상조계전도(上海縣城廂租界全圖)’에는 여러 서점의 서점명이 수록되어 있는데, 확인되는 서점으로는 ‘점석재’, ‘신보관’, ‘신창서화실’이 확인되며, 미국 조계지에 있었던 ‘점석재북국(點石齋北局)’ 등도 볼 수 있다. 『상해서목』에 기록된 점석재의

홍보문을 보면, 『상해서목』의 점석재의 홍보글에는 상해에는 분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미국 조계지 내에 위치하던 점석재북국은 1884년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으나, 1888년에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몇 년 사이에 상해 소재 서점이 변화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점석재는 노갑(老閘) 서쪽에 개설하였습니다. 분국(分局)은 없습니다. 각 성부(省埠)의 신보를 파는 곳과 각 서방에서 모두 판매하고 있습니다.¹⁶⁾

문옥산방, 격치서실, 동문서국의 홍보 문구를 살펴보면 당시 상해에 있는 서점 외에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을 기록해 두었다. 문옥산방과 동문서국의 경우 북경의 유리창에 분점을 두었다고 기록하였으며, 격치서실의 경우 북경을 비롯하여 천진, 연태, 항주 등 많은 도시에 분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개항장이 있던 광주, 복주, 하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옥산방은 상해 영국 조계지 오마로 지방에 창설하였습니다. 고급 서적, 화보, 법첩 및 석인, 동판, 연판 등 각종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때를 살피서 가격을 정하고 성신(誠信)하여 기만함이 없습니다. 무릇 손님들 덕분에 저렴하게 판매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에 일상적인 서적의 가목을 뒤에 이어서 열거합니다. 아울러 북경 유리창 중단(申段)에 분점을 개설하였으니, 보려는 사람은 가까운 곳을 이용하십시오. 문옥산방이 삼가 아뢰입니다.¹⁷⁾

(격치서실) 그 나머지 석인 연판 동판, 목판의 경사 시문 각 책은 본 서실에 고르게 판매합니다. 격치서 중에 기(器)와 료(料)는 서국(西國)에 부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점은 천진 마가구(馬家口), 무창(武昌) 고원가(考院街)와 북경, 연태, 항주, 산두, 하문, 복주, 홍콩, 광주 등 여러 곳에서 모두 판매합니다.¹⁸⁾

동문서국은 홍구(虹口) 서화로(西華路)에 개설하였습니다. 오로지 석인본 서화 도첩만 갖추고 있습니다. 분점으로 책을 파는 곳은, 하나는 이마로 포구장(拋球場)에 있으며, 하나는 북경 유리창에 있고, 하나는 사천 중경부에 있으며, 하나는 광둥성성(廣東省城)의 광백송재(廣百宋齋)입니다. 그 나머지는 각 성부(省埠)의 서방에서 고르게 출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¹⁹⁾

16) 『상해서목』 제3책 제33장.

“本齋設在，老閘西首。並無分局。各省埠經售申報處，并各書坊，均有發兌。”

17) 『상해서목』 제1책 제22장.

“本號創設，上海英租界五馬路地方。發兌，古今書籍·畫譜·法帖，及石印·銅·鉛版等各種。按時定價，誠信無欺。凡蒙仕商賜顧者，靡不格外克己，茲將常行書籍價目，開列於後。並分設京都琉璃廠中段，閱者就近而取焉。文玉山房謹啓。”

18) 『상해서목』 제2책 제88장.

“其餘石印·鉛板·銅板·木板，經·史·詩文各書，本書室均有出售。格致書中器·料，能向西國定辦。分店在天津馬家口·武昌考院街，以及北京·煙台·杭州·汕頭·廈門·福州·香港·廣州等處經售。”

19) 『상해서목』 제3책 제43장.

“本局設在，虹口西華路。專辦石印書畫·圖帖。分局售書處，一在二馬路拋球場，一在京都琉璃廠，一在四川重慶府，一在廣東省城廣百宋齋。其餘各省埠書坊，均有發兌。”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에 나타난 19세기 후반 중국서적 판매와 조선유입

가목에는 서명이 동일한 서적도 16개 서점의 가목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가격이 동일한 경우도(<표 3> 참조),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표 4> 참조) 확인된다.

<표 2> 서점의 분점 현황

No	서점명	분점 위치
1	문옥산방	北京 琉璃廠 中段
2	격치서실	天津 馬家口, 武昌 考院街, 北京, 煙台, 杭州, 汕頭, 厦門, 福州, 香港, 廣州
3	동문서국	二馬路 拋球場, 北京 琉璃廠, 四川 重慶府, 廣東省城의 廣百宋齋, 各 省埠의 書坊

서명이 동일한 경우에도 판본, 간행처 등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판매서점에서 분류한 가목명(價目名)을 통해 대략적인 판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韋新畫譜(萃新畫譜)』는 총 12개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었으며, 석인본으로 간행된 화보인 것으로 추측된다.

<표 3> 동일 서명의 동일 가격 판매 현황

No	서명	판매서점명	價目名	가격
1	萃新畫譜	해장서장	上洋海昌書莊發兌石印銅版鉛版各種書籍圖帖價目	4角
2		문옥산방	文玉山房銅版石印書籍	
3		강좌서림	石印銅版錫版各鍾書籍	
4		보문각	上海寶文閣發兌石印書籍法帖價目	
5		문서루	石印縮本書籍價目	
6		독미루	石印各種書籍	
7		포방각서림	上海抱芳閣書林發兌石印各種書籍價目	
8		격치서실	各埠中西人譯著各書	
9		저역당서국	上海著易堂書局發兌石印各種書籍價目	
10		동문서국	各種字畫價目	
11		망삼익재	上海望三益齋發兌石印書籍法帖價目	
12		삼창서국	各種畫譜價目	

서명은 동일하지만 가격이 다른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척독초황(尺牘初恍)』을 살펴보면, 총 8개소의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목명을 살펴보면 석인본, 연판본, 목판본 등으로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책 수는 홍문서국(鴻文書局), 포방각서림, 격치서실에서 2책으로 확인되며 판본은 정확하지 않다. 독미루에서는 석인본과 목판본 2종류의 서적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서로 동일하다. 신보관에서 판매한 서적은 연판본 4책으로 추정된다. 신보관을 제외한 7개 처의 서점에서는 모두 5권의 가격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있는데, 신보관에서는 그 5배에 해당하는 2각 5푼으로 판매하고 있어 판본에 따른 가격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행강희사전(直行康熙字典)』은 점석재와 삼창서국 2개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삼창서국에서는

총 6개의 판본을 판매하고 있는데 가목을 살펴보면 모두 석인본으로 판단된다. 책 수는 『상해서목』에 기입된 것과 기입되지 않은 것이 있어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6책, 4책, 2책, 1책으로 두 종류의 서적은 책 수를 알 수 없다. 권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점석재와 삼창서국의 6책본은 모두 2원 5각에 판매되고 있다.

<표 4> 동일 서명의 다른 가격 판매 현황

No	서명	판매서점명	價目名	책 수	가격
1	尺牘初牘	해창서장	上海海昌書莊發兌石印銅版鉛版各種書籍圖帖價目		5分
2		문서루	鉛板木板價目		
3		독미루	石印各種書籍		
4			木板各種書籍		
5		홍문서국	上海鴻文書局各種石印鉛版書籍圖帖	2	
6		포방각서림	上海抱芳閣書林發兌石印各種書籍價目	2	
7		격치서실	各埠中西人譯著各書	2	
8		망삼익재	上海望三益齋發兌石印書籍法帖價目		
9		신보관	鉛版2	4	2角5分
10	直行康熙字典	점석재서국	各種書籍	6	2元5角
11		삼창서국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6	2元5角
12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1元5角
13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2元
14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4	1元8角
15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2	1元7角
16			上海三蒼書局精校縮刻石印書籍價目	1	1元6角

『상해서목』을 살펴보면 타 서점의 간행 서적을 판매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서적이 점석재에서 출간한 서적들이다. 서명에 주석으로 점석재에서 간행한 석인본인 것을 밝히고 있다. 다음 <표 5>에서 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점석재 서적을 정리하였다. 총 7종의 점석재 간행본을 타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4종의 서적은 점석재와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점석재에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서적은 『패문운부(珮文韻府)』와 『전후한서(前後漢書)』 2종의 서적으로 확인되며, 『점석재화보(點石齋畫譜)』의 경우 점석재의 가목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책이다. 가목에 서점에서 간행하고 판매한 모든 책을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목을 통해서 타 서점의 간행서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각 서점의 가목에서 서명과 가격을 기록한 후 주석으로 타 서점 간본을 밝히고 있는데, 가목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명과 판종, 책 수가 동일한 경우가 많다. 각 서점에서 비슷한 서적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판종의 크기나, 표구의 유무, 채색의 유무 등으로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다. 대체적으로는 서명이 동일한 경우 가격도 동일하게 책정되었지만 동일본이라고 확정 짓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다.

<표 5> 타 서점에서 판매하는 점석재 서적

No	서명	판매서점	판매가격	비고
1	鋼監易知錄	점석재 / 저역당서국	3元5角	동일 가격 판매
2	史記	점석재 / 해창서장 / 문옥산방 / 보문각 / 망삼익재	1元8角	
3	點石齋叢書	점석재 / 해창서장 / 문옥산방 / 보문각 / 저역당서국 / 망삼익재 / 삼창서국	1元	
4	五經體註	점석재 / 문옥산방	2元6角	
5	珮文韻府	점석재	24元	상이 가격 판매
		강좌서림 / 저역당서국	30元	
6	前後漢書	점석재	4元	
		해창서장 / 문옥산방 / 보문각 / 망삼익재	4元5角	
7	點石齋畫譜	신보관	5分	타서점 판매

4. 『집옥재서적목록』에서 확인되는 상해 발행 서적

『집옥재서목』에 기재된 서적은 총 2,665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1,923부의 서적이 중국본으로 확인된다. 현존하는 서적의 주기사항과 『집옥재서목』의 서명 등을 파악하여, 일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더 많은 중국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중국본의 간행지를 알 수 있는 서적은 726부로 주로 상해(529부), 북경(20부), 호북(23부), 진하(39부) 등에서 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집옥재에 소장된 중국본 전체로 보면 약 27%가 상해에서 간행된 서적으로 확인된다. 소장처를 알 수 없는 중국본 자료가 1,000종이 넘기 때문에 간행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약 72% 정도가 상해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880년대에 상해에 세워진 서관으로는 소엽산방(掃葉山房)(1879년), 문서루(文瑞樓)(1880년), 배석산방(拜石山房)(1881년), 중서서국(中西書局)(1882년), 홍문서국(1882년), 비영관(蜚英館)(1887년), 저역당(1890년 이전), 포방각(1882년 이전),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1897), 장복기(章福記), 문회당서국(會文堂書局) 등이 있다.²⁰⁾ 그 중에서 1888년에 『상해서목』에 기록된 서점은 문서루, 홍문서국, 저역당, 포방각 등으로 확인된다. 현재 집옥재 소장도서로 확인되는 중국본 자료 중 출판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에 한정하여, 상해에서 간행된 자료를 발행처별로 살펴보면 신보관, 동문서국 등 56개의 간행소가 확인된다(<표 6> 참조).

『상해서목』에서 확인되는 서점으로는 9개의 서점이 확인되는데, 신보관은 86종, 동문서국은 61종, 점석재서국은 60종, 홍문서국은 27종, 강좌서림은 19종, 격치서실은 9종, 저역당은 7종, 문서루는 2종, 문회관은 1종의 서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집옥재 서적으로 확인되는 중국본 중에서 상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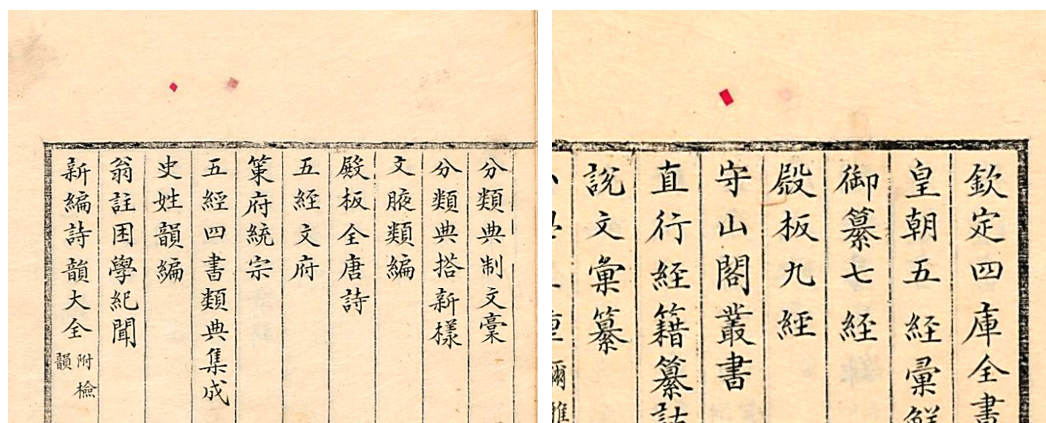
20) 김미정(2003), 195.

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수가 529종인데, 그 중에서 약 51%인 272책이 『상해서목』에 기록된 16개 서점에서 간행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표 6> 집옥재 소장본 중 상해 소재 서점 간행본

No	서점명	수	No	서점명	수	No	서점명	수	No	서점명	수
1	申報館	86	15	著易堂	7	29	文海書局	2	43	文玉山房	1
2	掃葉山房	68	16	管可壽齋	6	30	上海書局	2	44	文匯館	1
3	同文書局	61	17	崇德堂	6	31	漱六山莊	2	45	書業公所	1
4	點石齋	60	18	樂善堂	6	32	仁濟醫館	2	46	袖海山房	1
5	積山書局	37	19	淞隱閣	5	33	暢懷書屋	2	47	淞隱閣	1
6	鴻文書局	27	20	敦懷書屋	3	34	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Press	1	48	瀛華書局	1
7	鴻寶齋	23	21	墨海書館	3	35	Presbyterian Mission Press	1	49	五岳堂	1
8	崇文書局	20	22	石倉書局	3	36	蘭玉山房	1	50	王氏印行	1
9	江左書林	19	23	醉六堂	3	37	幹暢懷書	1	51	龍文書局	1
10	大同書局	16	24	廣百宋齋	2	38	江南書局	1	52	印書局	1
11	蜚英館	15	25	圖書集成局	2	39	江則山房	1	53	精一閣	1
12	美華書館	14	26	望三益齋	2	40	檢古齋	1	54	千頃堂	1
13	格致書院	9	27	文瑞樓	2	41	南棠仙館	1	55	滬上	1
14	益智書會	9	28	文藝齋	2	42	大文書局	1	56	弘溪志遠堂	1

『상해서목』의 서미에는 간혹 붉은색 종이가 붙어 있거나, 희미한 권점(圈點)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그림 6>). 붉은색 종이로 표기한 것은 구매하고자 하는 서적을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서미 표기(『상해서목』 좌: 제1책 3쪽 B면, 우: 제1책 5쪽 A면)

『사성운편(史姓韻編)』은 24사에 나오는 인물의 성씨를 운에 따라 배열하고 해당 인물에 대해 간략히 기록한 서적으로, 『집옥재서목』에서 확인된다. 16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규장각에서 1884년(광서10) 경여루서국(耕餘樓書局)에서 활자로 간행한 책 1질이 소장되어 있다. 『수산각총서(守山閣叢書)』는 장해봉(張海鵬)의 『묵해금호(墨海金壺)』를 증보하여 만든 총서로, 『집옥재서목』에는 100책으로 확인된다. 다만 규장각에 소장된 『수산각총서』에는 집옥재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해당 서적이 집옥재 소장본으로 확실히 추정할 수는 없다. 『백효도(百孝圖)』는 명나라 시기까지의 100명의 효행을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며, 『집옥재서목』에서 2책본으로 확인된다. 규장각에는 1881년 신보관에서 간행한 서적으로 나타난다. 『오경문곡(五經文鵠)』은 1881년 상해 적산서국(積山書局)에서 간행한 서적이 집옥재 소장본으로 확인되며, 『사서전고핵(四書典故覈)』은 1887년 점석재에서 간행한 2책본이, 『시경집구류연(詩經集句類聯)』은 1886년에 간행된 석인본 2책이, 『패문운부』는 『집옥재서목』에 7질이 확인되며, 규장각에는 115책본, 95책본 2질이 나타나 상관관계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7> 해창서장 가목 중 서미 표기 서적

No	서명	가격	No	서명	가격
1	五經四書類典集成	10元	7	四書典故覈	4角
2	史姓韻編	5元	8	詩經集句類聯	4角
3	歷代名人草字彙	2元4角	9	殿板佩文韻府	
4	守山閣叢書	18元	10	殿板十三經註疏[並校堪記]	12元
5	百孝圖	3角	11	小倉山房往還尺牘	7角
6	五經文鵠	5元			

서미에 표기되어 있는 서적 중 일부는 『집옥재서목』에서 축약된 서명으로 확인되며, 여러 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견된다. 『상해서목』에 해당 서적의 정확한 서지사항을 기록하고 있지 않으며, 『집옥재서목』에도 서적의 소장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 있다. 타 출판소에서 간행한 서적을 해창서적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해창서장에서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적이 반드시 해창서장에서 발행한 서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272책 중에 『상해서목』에서 검색되는 책과 『집옥재서목』에서 확인되는 서적의 수를 확인해보면, 강좌서림에서 출간된 서적은 집옥재에는 19종이, 신보관에서 간행된 서적의 경우 집옥재에는 86건 소장되어 있으나 『상해서목』에서는 모두 해당 서명을 찾을 수 없다. 집옥재 소장본 중 상해 출판사에서 간행된 서적의 건수와 『상해서목』에서 검색되는 서적의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해당 서적을 출판한 서점에서 반드시 서적을 구입하지 않고 제3의 서점을 통해 구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의 서책은 조선 후기에는 주로 연행사로 중국에 갈 때 북경의 유리창 혹은 서적중개인인 서반(序班)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1850년경 이후에는 종각에서 남대문까지, 특히 광통교(廣通橋) 일대에 서화, 서책 전문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1882년 8월 체결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계기로 인천과 상해를 연결하는 기선이 취항하면서 상해의 문물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있다.²¹⁾ 중국과 조선의 무역은 1886년까지 정기 항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무역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1886년에 개설된 공식적인 항로도 인천과 상해만을 연결한 연결선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중국, 조선을 거쳐 일본까지 연결하는 우선회사(郵船會社)의 기선으로, 1888년 이후에야 상해와 인천 간의 정기 상선 항로가 개설되었다. 이 항로도 1894년(고종 31) 청일전쟁으로 폐지되었다.²²⁾

상해와 인천 사이에서 왕복하는 정기 상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서울의 청계천 일대에는 상해의 서적을 파는 점포들이 생기게 되었다. 이는 청일전쟁 발발 이전까지 지속되었는데, 중국본의 수입도 이러한 점포의 형성에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출판사 중에는 조선에 지점을 내서 중국 서적을 직접 판매한 경우도 확인된다. 상해의 소엽산방은 경남 밀양에 이엽산방(二葉山房)에 지점을 내고 판매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였으며, 광학서포(廣學書鋪)의 경우 중국 서적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였다.²³⁾ 따라서 집옥재에 유입된 중국 서적은 상해에서 직접 수입되었거나, 국내에 있던 서점을 통해 입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옥재 소장 중국본 중 간행 시기를 알 수 있는 서적의 대부분은 1888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검색되며, 1889년 간행본은 29종에 그친다. 이 사실은 상해에서 서적이 간행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서적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서적이 1889년 초에 일괄적으로 인천을 거쳐 조선으로 전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는 중국 서적 뿐 아니라 청나라에서 제작되었던 시전지도 조선 왕실에 수입되었다. 그 시전지를 보관한 전갑(箋匣)에는 판매처의 상호명과 안내문, 시전지 명칭이 남아 있어 시전지 전문상점에 관한 정보가 파악되며, 시전지를 판매한 상점의 주요 위치는 북경, 천진, 소주, 상해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²⁴⁾ 이 지역은 서적을 판매하던 지역과 유사하며, 전갑에 기록된 안내문도 『상해서목』에 기록된 홍보문구와 비슷하게 작성되어 있어 19세기말~20세기 초에 사용된 홍보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 19세기 말에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뿐만 아니라 시전지 등의 종이나 필묵과 같은 문방구도 중국에서 조선으로 입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 최경현, “朝鮮 末期와 近代 初期 山水畫에 보이는 海上畫派의 영향 - 上海에서 발간된 畫譜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Vol.15(2002), 235.

22) 유창, “근대 煙臺와 仁川 간의 항로,” 『한중인문학연구』 40(2013), 237-243.

23) 유준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67-68.

24) 손계영, “조선왕실 수입 淸末 詩箋紙 형태 및 제작처 연구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를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373-376, 385.

5. 결 론

한반도에서 중국 서적을 수입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연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중국의 문물을 접하고, 서적을 구입하였다.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에 담겨있는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세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중국 서적 수입 경향은 19세기 말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상해서목』은 19세기 말에 조선 왕실에서 어떠한 서적을 수입했는지 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목록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세기 말 전 세계의 정보를 모아 상해에서는 각종 서적을 간행하고 판매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새로운 기술법이 축약된 결과로 확인된다. 특히 항해술의 발달과 개항장을 통해 중국 상해와 조선이 직접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던 상황은 이전 시기보다 빠르게 새로운 서적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해에서 판매하고 있던 서적 중 일부는 서점에서 별도의 목록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두었다. 조선왕실에서는 1888년에 발간한 가목을 중심으로 16개의 서점의 서목을 필사해두고 3책으로 엮어서 보관하였다. 『상해서목』은 1889년 이전에 상해에서 판매하고 있던 서적의 종류와 판매 가격을 알 수 있는 서목으로, 기록된 서명 일부에는 붉은색 종이를 붙여 구입한 서적을 표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입한 서적의 목록과 구입한 가격을 알 수 있으나, 기록된 내용이 소략하여 『집옥재서목』이나 집옥재 인장이 날인된 현존본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된다. 서점에서 발간한 판매 가목과 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목록, 현존본을 보다 면밀하게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K2-4650).

『集玉齋書籍調查記』(奎 11705).

『集玉齋目錄外書冊』(奎 11703).

『集玉齋書籍目錄』(奎 11676, K2-4667, K2-4667=2).

김미정. “上海에서의 근대적 독서시장의 형성과 변천에 관하여.” 『中國文學』 제40집(2003). 189-208.

민회수. “규장각 소장본으로 본 개항기 서양 국제법 서적의 수입과 간행.” 『규장각』 47(2015). 201-229.

박수밀. “조선의 중국 서적 유입 양상과 그 의미 - 서반(序班)과 유리창(琉璃廠)의 존재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0집(2011). 125-154.

손계영. “조선왕실 수입 清末 詩箋紙 형태 및 제작처 연구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시전지를 중심으로 -.”

- 『서지학연구』 제55집(2013. 9). 371-404.
- 송일기. “삼국시대 서적 유통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1호(2013). 227-259.
- 옥영정. “조선 使臣의 중국서적 수집활동과 그 현존자료에 대한 시론적 고찰.” 『서지학연구』 제61집 (2015. 3). 5-29.
- 유창. “근대 煙臺와 仁川 간의 향로.” 『한중인문학연구』 40(2013). 233-255.
- 유준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2.
- 윤세순. “외래 도서가 한국한문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의 탐색 ; 조선시대 중국소설류의 국내유입에 대하여.” 『東方漢文學』 66(2016). 147-170.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서울: 태학사, 2000.
- 이혜정. “集玉齋書籍目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 최경현. “朝鮮 末期와 近代 初期 山水畵에 보이는 海上畵派의 영향 - 上海에서 발간된 畵譜를 중심으로.” 『美術史論壇』 15(2002). 221-255.
-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main.do>> [접속일 2019.11.1.]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dditional 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 / Jibokjae Moklok Oe Seochaeg* (Kyu 11703).
- 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 / Jibokjae Seojeok Moklok* (Kyu 11676, K2-4667, K2-4667=2).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 Seung Jung Won Il Gi.*
- <<http://sjw.history.go.kr/main.do>> [Access date 2019.11.1.]
- The Lists of Books sold at Bookstores in Shanghai / Sanghae Seojang gakjong Seojeok Docheop Seomok* (K2-4650).
- Survey of Books in Jibokjae / Jibokjae Seojeok Josagi* (Kyu 11705).

- Choi, Kyoungyun. 2002. “The Influence of Shanghai School(上海 畵派) on Landscape Painti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Early Modern Times: Centered on Painting Manuals(畵譜) Published in Shanghai.” *Art History Forum*, 15: 221-255.
- KIM, MEE JEONG. 2003.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he Changes of Modernistic Reading-market in Shang-Hai.” *CHINESE LITERATURE*, 40: 189-208.
- Lee, Hyejung. 2019. *Study on Catalogue of Books in Jibokjae*. Doctoral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Lee, Tea Jin. 2000. *Review of Emperor Gojong's period*. Seoul: Taehaksa.
- Min, Hoi Soo. 2015. "A Study on the western books of international law, translated into Chinese character and published in late 19th century, in the possession of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yujanggak*, 47: 201-229.
- Ok, Young Jung.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Book Collection of Joseon Missions to Imperial China and its Existing Old Books."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1: 5-29.
- Park, Su Mil. 2011. "The way of importing Chinese books and its Meaning in Chosun Dynasty: In terms of SeoBan and Liulichang's role." *Journal of East Asian Cultures*, 50: 125-154.
- Son, Keyoung. 2013. "The Import and Use of Qing's Decorated Letter-Papers by Joseon Royal Family in the Late 19th Century: Centered on Decorated Letter-Papers Housed in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5: 371-404.
- Song, Il Gie. 2013. "A Study on Book Distributions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1): 227-259.
- Yoo, Chang. 2013. "A study on the sea route between Chefoo and Incheon in modern times." *Studies of Chinese & Korean Humanities*, 40: 233-255.
- Yoo, Choon-dong. 2012. *A study on the aspects of the reception of 《Shuihuzhuan》 in Korea and Korean translations*.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Yun, Se Soon. 2016. "The influx of various works of Chinese fiction in Choson Dynasty." *DONG-BANG KOREAN CHINESE LIEARATURE*, 66: 147-170.

